



대한건설협전남도회, 영암군에 쌀 기부

대한건설협회 전남도회(협회장 박경재)가 지난 3일 영암군청에서 취약계층에 나눠달라며 500만원 상당의 영암쌀 10kg들이 200포를 전달했다. (사진)

4일 영암군에 따르면 1961년 설립된 대한건설협회 전남도회는 경기·서울에 이은 전국 세 번째 규모로 4개 권역 1130개의 회원사로 구성된 회원사의 권익증진과 건설사업 발전 등을 추구하고 지역경제 성장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박경재 협회장은 “영암군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영암에서 생산된 쌀을 나눌 수 있어서 더 뜻깊은 자리다. 늘 지역민의 어려움을 살피는 협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영암=한교진 기자**



제10기 오매광주 SNS 기자단 해단식

광주관광공사가 최근 ‘제10기 오매광주 SNS 기자단’ 해단식을 개최하며, 지난 8개월간의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사진)

4일 광주관광공사에 따르면 공모를 통해 선발된 10명의 기자단은 광주 시민 8명과 외국인 2명으로 구성됐으며, 광주의 문화와 관광을 주제로 다양한 콘텐츠를 기획, 취재, 제작하며 광주의 매력을 널리 알리는 데 앞장섰다.

이번 해단식에서는 지난 8개월간 활동을 마무리하고 수료증을 수여했으며, 관광도시 광주 홍보를 위해 앞장선 우수 기자단을 시상하고 활동에 대한 소감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노병하 기자**



광주기독병원, 책임의료기관 역할 강화 세미나 성료

광주동남권 지역책임의료기관인 광주기독병원은 최근 라마다플라자 충장호텔에서 ‘광주시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책임의료기관의 역할과 발전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

4일 광주기독병원에 따르면 이번 세미나는 광주기독병원, 광주시, 전남대학교병원, 광주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방향과 과제를 논

의하는 자리로 약 100명의 공공보건의료 및 책임의료기관 관계자, 유관기관 실무자들이 참석했다.

홍건영 광주기독병원 기획실장은 “이번 세미나는 광주지역의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중요한 첫 걸음”이라며, “타 지역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책임의료기관 간 협력과 상호 지원을 통해 공공보건의료의 질적 향상을 이루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병하 기자**



전인철 교수, 대한시과학회 제13대 회장 당선

전인철 동신대 안경광학과 교수(학과장)가 대한시과학회 제13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사진)

4일 동신대에 따르면 전인철 교수는 최근 여주대에서 개최된 대한시과학회 정기총회에서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다.

전 교수는 풍부한 학문적 업적과 리더십으로 향후 대한시과학회의 발전을 이끌어갈 책임자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는 활발한 학회 활동과 함께 광학 및 안과학 분야에서 뛰어난 연구 업적을 쌓아왔다. 특히 안과학 및 시과학의 융합 연구를 통해 학문적 지평을 넓히는 데 앞장서고 있다.

전 교수는 “우리나라 안과학 및 시과학 발전의 중심 역할을 해 온 대한시과학회가 앞으로도 학문적 연구와 실무적 응용 간의 균형을 유지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회원 간의 교류를 강화하고, 국내 연구자들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학회 차원의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최동환 기자**



2024 지산학연 연계 대학생 창업경진대회

조선대학교와 조선이공대가 공동 주관한 2024년 지산학연 연계 스타트업 Step-Up 프로젝트의 핵심 프로그램 ‘대학생 창업경진대회’가 지난달 29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주창업페스티벌과 연계해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 (사진)

이번 경진대회는 지역 대학생들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창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지역 창업 생태계를 강화하고자 진행됐다. 광주권 LINC3.0 사업 참여 5개 대학(조선대, 조선이공대, 광주대, 전남대, 호남대)은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지역 스타트업 생태계와 대학생 창업자 간의 네트워크를 한층 강화하며 의미 있는 성과를 냈다.

대상을 수상한 조선대 ‘Oh!ral Health’ 팀은 백태 제거율 76%를 목표로 한 구취 사탕을 개발하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주목을 받았다. Oh!ral Health 팀은 광주시장상과 300만원의 상금을 수상했으며, 투자 유치를 위한 IR 자료 제작 및 창업 자금 마련을 돕는 심화 컨설팅도 제공된다. **최동환 기자**



광주교통공사, ‘폭력예방교육’ 여성가족부 장관상

광주교통공사는 최근 여성가족부가 주관한 ‘2024 여성폭력 추방주간 기념식’에서 상호 존중하는 직장 문화 조성을 통해 행복한 일터 만들기에 앞장선 공로로 ‘폭력예방교육 우수기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사진)

4일 광주교통공사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매년 폭력예방교육 의무 실시 대상인 전국 공공기관 및 단체 중 교육 실적이 우수한 기관을 선정해 포상하고 있으며, 공사는 이번 수상에서 직장

내 폭력예방과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한 점을 크게 인정받아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중 유일하게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광주교통공사 조직문화팀장은 “배려와 존중의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임직원이 노력해온 결과를 인정받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폭력예방 교육과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 건강한 직장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병하 기자**



동강대, 장애인생활체육 종사자 강습회

동강대학교가 지역 내 장애인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관련 분야 종사자들의 전문성 강화에 앞장섰다. 동강대 스포츠재활트레이닝과는 최근 광주장애인국민체육센터 3층 다목적실에서 ‘2024년 장애인생활체육 종사자 강습회’를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사진)

이날 강습회는 스포츠재활트레이닝과 노재성 교수와 재학생들이 광주시 및 5개 자치구의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와 동호인 클럽 매니저, 생활체육팀 관계자 등 80여 명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을 펼쳤다. 교육은 스포츠안전재난의 스포츠테이핑·스포츠 응급처치 과정에 이어 최신 운동 트렌드인 캐틀벨과 고강도 단시간 운동법인 타바타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동강대 스포츠재활트레이닝과는 지난해에도 장애인생활체육 지도자들의 프로그램 개발 능력과 지도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교내 체육관에서 실기교육을 열었다. **최동환 기자**



광주 광산소방, 비상소화장치 사용법 교육

광주 광산소방은 지난 11월 한 달 동안 광산구 관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한 비상소화장치 사용법 교육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사진)

비상소화장치는 주택·상가 밀집 지역 등 소방차 진입이 곤란한 구간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지역주민 누구나 사용해 초기 진화할 수 있는 장치다.

광산구에는 화재 취약지역인 전통시장과 소방차 진입곤란지역 등 총 87개소의 비상소화장치함이 설치돼 있다.

광산소방은 11월 한 달간 △비상소화장치 작동원리, 관리 요령, 점검 방법 △비상소화장치 사용법, 실제 방수훈련 △비상소화장치 활용 사례 전파, 소방안전교육 등을 실시했다.

김관호 광산소방서장은 “화재를 예방하고 초기에 진화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비상소화장치 사용법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김상철 기자**

비상계엄 후폭풍… 지상파, 연말 시상식 고심

KBS “예정대로 진행”
MBC·SBS “결정 NO”

지상파 3사가 비상계엄 후폭풍을 겪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44년 만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6시간 만에 해지했지만, 연말 시상식을 앞두고 고심하는 상황이다.

KBS는 4일 “연말 시상식은 취소하지 않는다”며 “기존 일정에 변동사항 없다”고 알렸다. MBC와 SBS는 “아직 결정된 게 없다”고 했다.

‘2024 KBS 가요대축제 글로벌 페스티벌’은 20일 오후 8시30분부터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한다. MC는 래퍼 지코와 그룹 ‘아이브’ 장원영, 배우 김영대다. ‘KBS 연예대상’은 21일 오후 9시20분 서울 여의도동 KBS 신관에서, ‘KBS 연기대상’은 31일 오후 7시50분 같은 곳에서 열린다. 각각 가수 이영지와 이찬원, 그룹 ‘엠블랙’ 출신

이준, 아나운서 장성규와 그룹 ‘소녀시대’ 서현, 배우 문상민이 진행한다.

‘MBC 연예대상’은 29일 서울 상암동 MBC에서 열린 예정이다. 아나운서 전현무와 그룹 ‘걸스데이’ 출신 헤리, 배우 이장우가 진행한다. MBC 연기대상은 30일 같은 곳에서 개최하며, 아나운서 김성주가 5년 연속 MC를 맡는다. ‘MBC 가요대제전’은 31일 일산 MBC 드림센터에서 예정돼 있다.

‘SBS 연기대상’은 21일 서울 상암동 SBS 프리즘타워에서 열린다. 개그맨 신동엽이 8년 연속 진행한다. 배우 김혜윤, 그룹 ‘우주소녀’ 출신 김지연(보나)과 호흡한다. ‘SBS 가요대전’은 25일 인천 영종도 인스파이어 아레나에서 개최한다. MC는 아이브 안유진과 ‘NCT’ 도영, ‘투모로우바이투게더(TXT)’ 연준이다. ‘SBS 연예대상’은 31일 SBS 프리즘타워에서 진행하며, 전현무와 개그우먼 장도연, 모델 이현이가 MC를 맡는다. **뉴시스**